

『대승열반경』의 보살사상

이봉순¹⁾

I. 시작하는 말

『대승열반경』은 중기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서 소승의 열반경과 비교하여 『대승열반경』 혹은 줄여서 『열반경』이라고 한다.

여래께서 깨친 道의 작용이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어 널리 포섭하고 멀리 제도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경우, 이보다 먼저 의지할 것이 없고 이보다 앞서는 원리가 없다²⁾고 할 정도로 『대승열반경』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佛身常住·悉有佛性·闍提成佛 등의 佛敎理想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승열반경』의 실유불성과 일체제성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³⁾가 이루어져 왔고, 「대승열반경의 보살도」⁴⁾라는 河村孝照의 유사한 제목의 논문도 있다. 그러나 그 내

1)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2) 元曉 箸, 黃山德 譯 『涅槃宗要』(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82), 13쪽

3) 小川一乘, 『如來藏·佛性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昭和44年); 牟宗三, 『修訂三版 佛性與般若』上冊(臺灣: 學生書局); 朴京俊, 「大乘涅槃經에 나타난 一闍提成佛論」, 『韓國佛敎學』第17號;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の形成』(東京: 春秋社, 昭和 53年); 이흥만, 「불성사상에 나타난 실유불성과 일체제의 의미」, 『정신개벽논집』 10권; 宮本正尊, 『大乘佛敎の成立史的研究』(三省堂, 昭和 29年); 中村瑞隆 『究竟一乘寶性論研究』(鈴木學術財團, 1967年) 등

용은 『대승열반경』에 나타난 일천제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대승열반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필자는 지금까지 초기불교로부터 초기대승불교에 이르는 주요 경전의 보살사상을 정리했고, 중기대승불교 주요경전의 보살사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본고는 北涼曇無讖譯 『대승열반경』 40권 본을 저본으로 일체중생 실유불성설과 천제성불설을 중심으로 『대승열반경』의 보살사상과 그 연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악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살행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불교가 되도록 하는데 티끌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한다.

II. 一切衆生 悉有佛性說과 보살사상

불교교리 상 일체중생 실유불성설 만큼 중생들을 폭넓게 구체해주는 원리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佛性’이란 범어 buddha(佛)혹은 tathāgata(여래)에 -dhātu(性,) garba(藏), gotra(種性)라는 세 단어 중 어느 하나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복합어로서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서의 ‘부처를 얻기 위한 因’이라는 의미이다.⁵⁾ 이 ‘불성’이라는 말은 『대승열반경』을

4) 河村孝照 「大乘涅槃經における菩薩道」, 『大乘菩薩道の研究』, 357-391쪽

중심으로 나타나 『불성론』과 『보성론』에서 체계화된 것으로서 ‘여래장’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⁶⁾, 아함경의 ‘自性淸淨心’이나 부파불교시대 분별론자 등의 ‘心性本淨說’이 그 선구적 사상인 것 같다.⁷⁾ ‘실유불성’이란 부처의 지혜가 유정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고, 본성으로서 청정무구한 그 진여가 유정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어 성불할 수 있다고 가설하는 사상⁸⁾이다. 그러므로 실유불성설은 보살사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살사상은 중생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利他誓願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1. 구제사상으로서의 실유불성설

『대승열반경』의 실유불성설은 주로 「여래성품」에 역설되어 있는데, 「여래성품」 제4의 4는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지만 번뇌로 덮여있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⁹⁾

고 하고, 5가지 비유로써 중생들은 여래에 의하여 이 불성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5) 小川一乘 지음, 고승학 옮김 『불성사상』 (서울: 경서원, 2002), 40-41쪽

6) 朴京俊 「大乘涅槃經에 나타난 一闍提 成佛論」 『韓國佛敎學』 제17호, 224쪽

7) 平川彰 著, 李浩根 譯, 『印度佛敎의 歷史』 下, 67쪽

8) 小川一乘의 앞책 49쪽

9) 『大般涅槃經』 권7(『大正藏』 12, 405b), “一切衆生悉有佛性 煩惱覆故不知不見”

첫째, 가난한 여인이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집에 있는지 몰랐던 眞金藏을 발견하여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져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불성을 여래에 의해서 알게 됨으로써 생사의 고해에서 구제될 수 있다.¹⁰⁾ 둘째, 어머니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독을 짓에 바르는 방편을 쓰듯, 여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래장을 설명한다. 셋째, 씨름을 하다가 피부 속에 파묻힌 역사眉間の 금강주를 의사가 찾아주는 것처럼, 여래는 번뇌에 뒤덮여 불성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중생에게 불성을 찾아준다. 넷째, 흘러가는 곳에 따라 여러 맛으로 변하는 설산감초가 전륜성왕과 인연이 맺어질 때 본래의 참된 맛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여래의 秘藏 불성의 맛도 이와 같아서 중생이 번뇌에 덮여 있을 때는 볼 수 없지만 중생들이 佛과 인연이 되면 불성이라는 일미를 얻게 된다. 다섯째, 유·낙·생소·숙소·제호가 모두 우유에서 생기지만 소가 설산의 비니라는 풀을 먹으면 바로 제호가 생기는 것처럼, 중생도 불성을 보면 성불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비유에서 실유불성설은 여래의 지혜와 자비가 일체중생의 구제작용으로 구체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은 반드시 아록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10) 『大般涅槃經』권7(『大正藏』12, 407b), “如貧女人舍內多有眞金之藏……衆生佛性亦復如是 一切衆生不能得見 如彼寶藏貧人不知”

는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¹⁾

고 하여,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성불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생은 불성을 보아야만 생사에서 해탈하여 열반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생의 불성은 제불의 경계로서 성문이나 연각이 알바가 아니다. 일체중생은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번뇌에 얽매어 생사에 유전한다. 불성을 보게 되면 모든 번뇌가 얽어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에서 해탈하여 대열반을 얻는다.”¹²⁾

이와 같이 본 경은 중생들이 번뇌에 가려져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불성을 여래에 의해서 알게 됨으로써 생사의 고해에서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불성을 바르게 알고 보아 개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불교의 복음이 바로 이 실유불성설이다.

중생의 성불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아함경』에서부터 설해지던 것인데 『대승열반경』에 이르러 실유불성설로 나타난 것이다. 석존도 원래 범부에서 6년간의 수행 끝에 무상정등정각을 얻어 불타가 되었으며, 불타의 녹야원 초전법륜으로

11) 『大般涅槃經』권27(『大正藏』 12, 524b), “一切衆生定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是故我說一切衆生悉有佛性”

12) 『大般涅槃經』권28(『大正藏』 12, 531b), “衆生佛性諸佛境界 非是聲聞緣覺所知一切衆生不見佛性 是故常爲煩惱繫縛流轉生死 見佛性故諸結煩惱所不能繫 解脫生死得大涅槃”

교진여 등 5비구가 모두 무생열반법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는 5아라한이 있고 佛이 제6아라한¹³⁾이라고 한 사실을 보더라도 『아함경』에서부터 일체중생의 성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타 제세 시 악인의 대표라 할 제바달다는 “지옥에 떨어져 머무는 1겁 동안은 구제할 수 없다”¹⁴⁾고 하는 데서 1겁이 지난 후에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화경』¹⁵⁾에서는 제바달다가 장차 천왕여래가 된다는 기별까지 받는다. 또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귀도 교화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었다¹⁶⁾고 하고, 우둔하기로 유명한 주리반특도 大悟하여 아라한이 되었다¹⁷⁾고 함으로써 아직 불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도 모든 중생은 본성 상 불타처럼 성불이 가능하다고 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본성이 평등하다고 하여 현실적인 인간성까지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십송율』¹⁸⁾에는 四果의 차별 외에 성문승·연각승·불승의 인연자가 있다고 하고, 『별역잡아함경』¹⁹⁾에는 불·연각·보살·성문의 차별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일승도²⁰⁾가 있어

13) 『증일아함』권14(『大正藏』2, p.619b), “如來在波羅奈轉法輪…爾時…世尊告五比丘…此時成無生涅槃法…是時五比丘 盡成阿羅漢 是時 三千大千刹土有五阿羅漢 佛爲第六”

14) 『중아함』권27(『大正藏』1, 600c), “提和達哆必至惡處生地獄中。住至一劫不可救濟”

15) 『법화경』권4(『大正藏』9, 35a), “提婆達多 卻後過無量劫 當得成佛 號曰天王如來”

16) 『잡아함경』권38(『大正藏』2, 281a), “央瞿利摩羅得阿羅漢…本受不害名 而中多殺害……永離於傷殺 蒙佛恩力故”

17) 『증일아함경』(『大正藏』2, 601b), “尊者朱利槃特便成阿羅漢”

18) 『십송율』(『大正藏』22, 263a), “有得須陀洹果斯陀含果阿那含果者。有種聲聞乘因緣者 有種辟支佛乘因緣者 有種佛乘因緣者”

19) 『별역잡아함경』권3(『大正藏』2, 392b), “諸佛與緣覺 菩薩及聲聞”

중생을 청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근심걱정을 제도하고 모든 고뇌를 없애어 진여법을 얻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여 진여법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중생의 근기에 차별이 있어도 본성상으로는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본 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설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대승경전 중 『반야경』은 삼승을 엄격하게 차별하고, 『법화경』은 開三顯一의 일승사상으로 성문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함으로써 보살사상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대승열반경』에 이르러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여 전체 중생들에게 성불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삼승의 차별을 말함으로써 불성을 보기까지 많은 수행이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다.

2. 佛性を 보기 위한 行이 곧 보살행

모든 중생에게 아무리 불성이 있다고 해도 중생들이 그 불성을 알고 보지 못하면 생사에서 해탈하고 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성은 십주 보살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²⁰⁾ 때문에 중생이 불성을 알고 보기란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중생이 불성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십이인연을 불성이라고 하고, 불성을 제일의공

20) 『잡아함경』권44(『大正藏』2, 322b), “有一乘道 能淨衆生 度諸憂悲 滅除苦惱 得眞如法”

21) 『大般涅槃經』권8(『大正藏』12, 412a), “十住菩薩於如來性知見少分”

이라고 하고, 제일의공을 중도라 하고, 중도를 불이라고 하며, 불을 열반²²⁾이라고도 한다. 만약 불성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불과 불성에 차이는 없는가?” “일체 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면 중생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 구태여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불은 이미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데 중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동안 보살도를 실천하여야 미래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성을 알고 보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여래성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계를 호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불성을 볼 수 있겠는가? 일체중생에게 비록 불성이 있더라도 요컨대 계율을 지킨 후에라야 볼 수 있으며, 불성을 보아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²³⁾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번뇌에 가려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번뇌를 끊고 부수어야 한다.……불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한다.”²⁴⁾

불성이 아무리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어도 계를 지키고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번뇌를 없애는 등 보살행을 하여 불성을 보아야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어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목적인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22) 권27(『大正藏』 12, 524b), “十二因緣名爲佛性 佛性者卽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中道 中道者卽名爲佛 佛者名爲涅槃”

23) 권7(『大正藏』 12, 405a), “若不護持禁戒 云何當得見於佛性 一切衆生雖有佛性 要因持戒然後乃見 因見佛性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24) 권7(『大正藏』 12, 405b), “一切衆生悉有佛性 煩惱覆故不知不見 是故應當勤修方便 斷壞煩惱…有佛性者必定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성행품」²⁵⁾은 佛로부터 12부경이 나오고, 12부경에서 수다라가 나오며, 수다라에서 방등경이 나오고, 방등경에서 반야바라밀이 나오며, 반야바라밀에서 대열반이 나오는데, 이 대열반은 제호와 같은 것으로서 제호는 불성에 비유된 것이므로 불성은 곧 여래라고 하여, 불성을 얻는 데는 반야바라밀수행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사자후보살품」에서는 “문수사리같은 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세상에서 성스러운 도를 수행하여 불성을 명료하게 알지만 성문이나 벽지불이 어떻게 불성을 알 수 있겠느냐? 만약 중생들이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자하면, 一心으로 이 『열반경』을 수지·독송·서사·해설·공양·공경·존중·찬탄하여야 한다”²⁶⁾고 하여, 중생들이 불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반경을 수지독송하는 등의 수행을 열심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생들의 불성에는 正因과 緣因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정인이란 중생자체를 뜻하고, 연인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6바라밀을 뜻한다²⁷⁾고 하여, 모든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보살수행도인 육바라밀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사자후보살품」은 또 불성의 특징을 ① 대자대비 ② 대희

25) 권32(『大正藏』 12, 449a), “從佛出生十二部經 從十二部經出修多羅 從修多羅出方等經 從方等經出般若波羅蜜 從般若波羅蜜出大涅槃 猶如醍醐 言醍醐者喻於佛性 佛性者即是如來”

26) 권32(『大正藏』 12, 557a), “文殊師利諸菩薩等已無量世修習聖道了知佛性。云何聲聞辟支佛等能知佛性 若諸衆生欲得了知佛性者 應當一心受持讀誦書寫解說供養恭敬尊重讚歎是涅槃經”

27) 권28(『大正藏』 12, 530c), “衆生佛性亦二種因 一者正因 二者緣因 正因者謂諸衆生 緣因者謂六波羅蜜”

대사 ③ 대신심 ④ 극애일자지 ⑤ 제사력²⁸⁾ ⑥ 십이인연 ⑦ 사무에지 ⑧ 정삼매의 8종으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대승경전이 보살의 수행도로서 항상 중시해 오던 보살도를 두루 들고 있다. 대자대비와 대희대사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보살도로 설해져온 사무량심을 강조한 것이고, 대신심은 『법화경』의 믿음에 의한 見佛사상과 『무량수경』의信과 염불에 의한 왕생사상을 이은 것이다.

어둠 속에 물건이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어도, 계율을 지키고, 방편을 닦아 번뇌를 부수고, 一心으로 열반경을 수지독송하고, 대신심을 가지고 선지식의 도움을 받으며, 사무량심·삼매행 등의 여러 가지 보살도를 실천하고, 십이인연을 잘 관찰하여 사무에지를 얻어야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유불성설은 일체중생이 여래의 지혜와 자비에 의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요청받고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²⁹⁾ 중생들은 ‘불자’라는 확신을 깊게 할 때 스스로 더욱 보살도 수행에 정진할 자각을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불성을 볼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래의 정각이 대비·본원이라는 종교적 사실로 전환되어 대승불교의 보살도 체계 속에서 구제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실유불성설이라고 볼 수

28)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네 가지 방법 (自力, 他力, 因力(과거 宿因의 힘), 方便力) 중의 넷째인 방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선우나 선지식의 설득력을 말한다.

29) 小川一乘 지음 고승학 옮김, 앞의 책 62쪽

있다.

초기대승경전인 『법화경』은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라는 예언(수기)을 하여 여래가 성불을 보증하고,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지하기만 하면 아미타불의 극락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佛 쪽에서 중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成佛을 보증해주거나 佛이 중생을 성불의 경계로 이끌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중기대승경전인 『대승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설은 중생에게는 본래 성불의 고지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직접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佛性이다.

Ⅲ. 일천제 성불설과 보살사상

불성과 일천제는 서로 반대되는 교설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불의 가능과 불가능을 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둘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승불교사상사에서 일체중생실유불성설이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을 향하여 보살의 길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이상주의라면, 일천제는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관찰했을 때 보살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중생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십악업을 보면 그 반대의 십선업을 알 수 있듯이, 『대승열반경』의 일천제를 살펴보면 그 반대인 『대승열반경』의 보살상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경의 보살사상을 살피기에 앞서 일천제설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일천제는 범어 ‘icchantika’를 음사한 것으로 斷善根, 信不具足, 極欲 등으로 번역하는데, 이 용어는 불교계 이외의 일반사회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승불교권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증불감경』³⁰⁾ 이외에는 『대승열반경』에서 처음으로 ‘일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경 가운데서 정법의 쇠퇴를 염려하면서 정법호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전 성립당시의 사회적 배경 및 교단의 존립에 위협적인 무리들 때문에 본 경이 일천제사상을 설하게 된 것 같다.³¹⁾ 『법화경』³²⁾과 『대무량수경』³³⁾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 일천제와 보살

1) 일천제

「여래성품」 제4의 6에

“일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살마하살이다.”³⁴⁾

30) 『부증불감경』(『大正藏』 16, 467c), “舍利佛 此人以起 二見因緣故 從冥入冥 從闇入闇 我說是等名一闍提”

31) 朴京俊 「大乘涅槃經에 나타난 一闍提 成佛論」, 『韓國佛敎學』, 215-220쪽 참고

32) 『법화경』권1(『大正藏』 9, 7a), “會中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五千人等 卽從座起禮佛而退”

33) 『무량수경』권18(『大正藏』 12, 268a), “十方衆生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 誹謗正法”

34) 권9(『大正藏』 12, 420b), “除一闍提其餘皆是菩薩摩訶薩”

라고 하여, 일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보살마하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 경에서 설하는 보살상을 알고자 하면 먼저 일천제의 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小川一乘은 일천제를 “윤회에 愛執하여 불법을 돌아보지 않는 자”, “斷善根으로서 반열반하는 성질이 없는 자”등으로 정의하였다. 『보성론』은 일천제를 일체유정의 최하위에 있는 邪定聚 중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입능가경』에서는 “일천제란 반열반하는 중성이 없는 자, 보리의 인이 없는 자”로 설해져 있고, 『대승장엄경론』에서는 특히 “因이 하열한자”를 일천제로 부르고 있는데, 안혜는 주석서에서 “因이라고 하는 것은 三乘에서 열반하는 선근과 중성이다. ‘인이 하열한자’란 그것이 없는 자이다. 왜냐하면 중성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삼승의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반열반하는 성질이 없는 자라 한다.”고 하였다.³⁵⁾

본고는 『대승열반경』의 일천제를 小川一乘³⁶⁾과 河村孝照³⁷⁾가 분류한 것을 참고로 ①현실 속의 일천제 ②근본 속성이 악한 일천제 ③중생의 교화방편으로 시설한 일천제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거기에서 일천제와 정반대인 보살의 相을 추정해 보려고 한다.

첫째 현실 속의 일천제에는 ①『열반경』을 믿지 않는 사람³⁸⁾ ② 바라문³⁹⁾ ③불법과 인연 없는 재가자⁴⁰⁾ ④무인무과

35) 小川一乘, 『如來藏·佛性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昭和44年), 205-211 참조

36) 小川一乘 지음, 고승학 옮김 『불성사상』 136-144쪽

37) 河村孝照 「大乘涅槃經における菩薩道」, 『大乘菩薩道の研究』, 357-391쪽

38) 권5(『大正藏』 12, 391c), “無信之人名一闍提”

39) 권16(『大正藏』 12, 460b), “彼諸婆羅門等一切皆是一闍提也”

40) 권17(『大正藏』 12, 466b), “若男若女若沙門若婆羅門 說言無道菩提涅槃 當知是

논자⁴¹⁾ ⑤과계자⁴²⁾ ⑥대승을 비방하는 자⁴³⁾의 여섯 종류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근본 속성이 극악한 일천제로는 ①사중법, 칠멸쟁법 등을 파괴하고 다투치지 않는 자⁴⁴⁾ ②선근을 끊은 자⁴⁵⁾ ③ 최하근기인⁴⁶⁾ ④교만심자⁴⁷⁾ ⑤보리의 인이 없는 자⁴⁸⁾ ⑥불성을 보지 못하는 자⁴⁹⁾의 여섯 종류가 있다. 셋째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시설한 일천제에는 ①여래가 시현한 일천제⁵⁰⁾ ②일천제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⁵¹⁾ ③삼악도에 떨어지는 報障者 ④다음 생에 중죄의 과보를 받게 되는 生報者⁵²⁾ ⑤오근불구자⁵³⁾ ⑥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⁵⁴⁾의 여섯 종류가 있다.

총 18종으로 살펴본 이러한 일천제의 모습에서 그 반대인 『대승열반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보살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어 열반경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계율을 수지하고, 사중금 내지 칠멸쟁법 등의 죄를 짓지 않고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는 상

輩名一闍提魔之眷屬”

- 41) 권33(『大正藏』 12, 561a-562a), “是人所說無因無果…是一闍提”
 42) 권33(『大正藏』 12, 563b), “毀戒懈怠犯四重禁作五逆罪 作一闍提斷諸善根”
 43) 권9(『大正藏』 12, 418c), “惡子謂謗方等大乘經典 可作者謂一闍提說無方等”
 44) 권4(『大正藏』 12, 386c-387a), “有人盡破一切戒 云何一切 謂四重法乃至七滅…如是重罪長夜不悔”
 45) 권32(『大正藏』 12, 554b), “一闍提者名斷善根”
 46) 권14(『大正藏』 12, 447c), “極下根者即一闍提”
 47) 권9(『大正藏』 12, 418c), “是一闍提驕慢心故”
 48) 권9(『大正藏』 12, 418b), “唯不能令一闍提輩立菩提因”
 49) 권9(『大正藏』 12, 418c), “佛爲衆生說有佛性 一闍提輩流轉生死不能知見”
 50) 권4(『大正藏』 12, 388b-389b), “我于示現於閻浮提爲一闍提”
 51) 권10(『大正藏』 12, 425b), “一闍提者其義云何 …… 造是重業永不改悔心無慙愧如是等人名爲趣向一闍提道”
 52) 권31(『大正藏』 12, 551c), “生報者 如一闍提犯四重禁及五逆罪”
 53) 권26(『大正藏』 12, 519a), “不具信故名一闍提 …… ”
 54) 권32(『大正藏』 12, 554ab), “一闍提者名斷善根 斷善根故沒生死河不能得出”

근기자로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보리의 因을 세워 불성을 보고, 37菩提分法을 닦아 삼선도에 태어나거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살

‘보살’이란 말은 인도종교사상 불교만의 용어로서 경전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초기불교경전은 과거제불을 비롯한 석존과 미래불인 미륵불의 수행시절을 ‘보살’이라고 하고, 부파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는 ‘자리리타를 행원으로 하고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지혜로운 유정’을 보살이라고 하고, 대중부는 석가모니불을 초역사적인 존재로 보고 ‘태내 5위를 거치지 않는 불타의 후보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초기대승불교에 이르면 소위 ‘보리심만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이라는 사상이 일어나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보살이 등장하고 나아가 ‘보살마하살’이라고 부른다.

『대승열반경』은 ‘보살’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일천제’의 의미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1) 일체중생실유불성을 믿는 자

「여래성품」제4의 4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번뇌에 가려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그러나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여래비장의 경이 있으니, 그 경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여 무량한 번뇌와 결박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무량한 우바새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빠짐없이 불성이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여래의 道와 경지에 머물러 아득다

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고 무량한 번뇌와 결박을 다하겠다'고 설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⁵⁵⁾

고 하여, 일체중생실유불성을 믿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스스로도 성취하고 남도 성취시키려는 사람을 보살마하살로 정의하고 있다.

(2) 『대승열반경』 書 · 寫 · 受 · 持 · 讀 · 誦者
여래성품 제4의 6은

“이 경전을 들으면 모든 악이 다 소멸한다...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보살마하살이다. 왜냐하면 이 대열반을 잠시라도 들었기 때문이며, 여래가 항상 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잠시 들은 자도 그런 것을 얻는데, 하물며 書·寫·受·持·讀·誦하는 사람은 어떻겠는가?”⁵⁶⁾

라고 하여, 이 경전을 읽고·베껴 쓰고·반아서·지니고·읽고·외우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3)상품의 지혜 소유자

사성제를 아는 두 가지 지혜 중 중품은 성문과 연각의 지혜이며, 상품은 불과 보살의 지혜⁵⁷⁾라고 하여 보살을 상품의 지혜 소유자라고 한다.

(4) 불성을 알고보고 깨닫는 사람

보살은 한량없는 세상에서 성스런 도를 수행하여 불성을

55) 권7(『大正藏』 12, 405bc), “一切衆生悉有佛性 煩惱覆故不知不見……我今亦有佛性 有經名曰如來秘藏 於是經中我當必定得成佛道 能盡無量億煩惱結 廣爲無量諸優婆塞 說言汝等盡有佛性 我之與汝俱當安住如來道地 成阿耨多羅三藐三菩 盡無量億諸煩惱結 作是說者…名爲菩薩”

56) 권9(『大正藏』 12, 420b), “聞是經典所有諸惡悉皆消滅 … 當知是人眞菩薩摩訶薩也 暫得聞是大涅槃故亦以生念如來常故 暫得聞者尙得如是 何況書寫受持讀誦”

57) 권13(『大正藏』 12, 442b), “知四聖諦有二種智 一者中二者上 中者聲聞緣覺 上者諸佛菩薩智”

명료하게 알려⁵⁸⁾, 불성을 알고보고 깨닫는 자는 세간이라 부르지 않고 보살이라 이름한다⁵⁹⁾고 하여 불성을 알고보고 깨닫는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5) 육바라밀 등 대승보살도 성취자

「사자후보살품」제11의 6은 “흉년 든 세상에서는 굶주린 중생의 먹이가 되고, 질병이 유행하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몸이 약이 되어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등 육바라밀을 수행하여도 과보를 구하지 않고”⁶⁰⁾ 목숨을 다하여 이타행을 하는 자를 보살마하살이라 하고, 「성행품」제7의3에서는 苦·集·滅·道の 사성제가 있는 사람을 보살마하살이라 하고, 성문·연각은 얻을 수 없는 사무애·사무외·십력·사무애해를 얻고도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살마하살이라고 하여 대승보살도를 성취한 사람을 보살마하살로 보고 있다.

(6) 대열반으로 반열반하는 사람

「여래성품」제4의 7에 “무슨 인연으로 사리불 등은 소열반으로 반열반하고 연각은 중열반으로 반열반하고 보살들은 대열반으로 반열반합니까?”⁶¹⁾라고 한 데서 보살마하살은 대열반으로 반열반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경은 ‘보살마하살’을 ‘일체중생의 실유불성을 믿고, 『대승열반경』을 서·사·수·지·독·송하며, 上品의 지혜를 소

58) 권32(『大正藏』 12, 557a), “諸菩薩等已無量世修習聖道了知佛性”

59) 권17(『大正藏』 12, 466b), “若有知見覺佛性者 不名世間名爲菩薩”

60) 권32(『大正藏』 12, 557b-558a) “菩薩摩訶薩爲破衆苦施安樂故 乃至能捨內外財物及其身命如棄芻草……菩薩摩訶薩復修行六婆羅蜜 亦不求於六婆羅蜜果”

61) 권10(『大正藏』 12, 413a) “何因緣故舍利佛等以小涅槃而般涅槃 緣覺之人於中涅槃而般涅槃 菩薩之人於大涅槃而般涅槃”

유하고 불성을 알고보아 육바라밀 등 대승보살도를 성취하여 대열반으로 반열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천제의 모습에서 유추해 본 보살상 즉 '열반경을 믿는 상근기자로서, 보리의 因을 세워 불성을 보고, 37보리분법을 닦아 삼선도에 태어나거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가 '보살'이라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승열반경』은 '일천제'를 '보살'과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천제의 성불과 보살도

『대승열반경』은 '일체중생은 실유불성이므로 모두 다成佛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일천제와 불성을 함께 관찰하면서 일천제의 성불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즉 일천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일천제는 성불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하는 두 가지 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경은 경의 전반부와 중반부·후반부에서 일천제성불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1) 일천제의 성불문제

「가섭보살품」은 현재세에는 번뇌로 인하여 선근이 끊어진 단선근도 미래세에는 불성의 힘이 인연이 되어 다시 선근이 발생한다고 한다. 미래에 발생할 이 善의 불성을 일컬어,

무릇 불성이란 일법이라고 할 수 없고 십법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백법 내지 천법 만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기

전에는 일체의 선·불선·무기를 모두 불성이라고 한다.⁶²⁾

라고 하여 선·불선·무기 등도 모두 불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천제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경은 전반부에서는 일천제의 성불을 일단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일천제 등은 선근을 끊고 지옥에 떨어진다.”⁶³⁾

“사중금과 오무간죄를 범한 자들도 이 경을 들은 뒤에는 무상보리의 인연을 지어서 번뇌를 점점 단절한다. 단지 횡사하지 않는 일천제만은 제외한다.”⁶⁴⁾

여기서는 사중금과 오무간죄를 지은 자까지도 이 경을 듣기만하면 보리의 인연을 지어 번뇌를 차츰 단절한다고 함으로써 미래의 성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천제만은 성불의 대열에서 제외하고 있다. 심지어 일천제는 죽여도 죄의 과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前10권 중에서도 때로는 ‘오역·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무간죄도 보리의 마음을 능히 일으키게 한다고 하여 일천제의 정의를 어느 하나로 고정시키지는 않고 중반부에서는 일천제의 정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不定) 한다. 「덕왕보살품」제10의 2의 덕왕보살의 질문에 대한 세존의 대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62) 권37(『大正藏』 12, 580c), “夫佛性者 不名一法不名十法 不名百法不名千法不名萬法 未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 一切善不善無記盡名佛性”

63) 권28(『大正藏』 12, 532c), “一闍提等斷諸善根墮于地獄”

64) 권9(『大正藏』 12, 420a), “犯四重禁及五無間 聞是經已 亦作無上菩提因緣漸斷煩惱 除不橫死一闍提也”

“세존이시여, 만약 선근을 끊은 자를 일천제라고 한다면 선근을 끊을 때에 지닌 불성은 어찌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불성이 만약 끊어진다면 어찌하여 다시 상·락·아·정이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그와 같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일천제라고 합니까?”⁶⁵⁾

“일천제는 결정되지 않았느니라. 만약 결정되었다면 그 일천제는 끝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나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말하기를 ‘불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일천제를 단선근이라고 하나이까’ 하였는데, 선남자야, 선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의 것이다. 불성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니 이러한 의미 때문에 불성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리고 불성은 유루도 아니고 무루도 아니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일체 법에 대하여 결정된 모습을 보지 않느니라.⁶⁶⁾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일천제라 하더라도 불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일천제에게도 성불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사중금을 참회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오역죄를 다하고 일천제를 멸한 뒤에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⁶⁷⁾

선근을 단절한 사람은 현재 세상에서는 먼뇌를 인연하여 선근을 단절하지만, 미래 세상에서는 불성의 위력을 인연하여 다시 선근을 생한

65) 권22(『大正藏』 12, 493b), “世尊 若斷善根名一闍提者 斷善根是所有佛性云何不斷 佛性若斷云何復言常樂我淨 如是不斷何故名爲一闍提也”

66) 권22(『大正藏』 12, 493c-494a), “一闍提亦不決定 若決定者是一闍提不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不決定是故能得 如汝所言佛性不斷 云何一闍提斷善根者 善男子。善根有二種 一者內 二者外 佛性非內非外 以是義故佛性不斷 復有二種 一者有漏 二者無漏 佛性非有漏非無漏 是故不斷……諸佛菩薩於一切法不見定相”

67) 권21(『大正藏』 12, 488b), “一切衆生悉有佛性 懺四重禁除謗法心盡五逆罪滅一闍提 然後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다.⁶⁸⁾

불성이라는 것을 현 시점의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성을 시간적으로 관찰한다면 지금 현재 일천제에게 불성이 없더라도 참회하고 선근을 쌓는다면 미래 언젠가는 불성의 위력을 인연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일천제의 성불조건

앞에서 본 경은 일천제의 성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불성은 일체제불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종자⁶⁹⁾이고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해야 논리적으로도 온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천제가 일천제인 채 그대로 성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천제는 어떻게 하여야 성불할 수 있는가? 「고귀덕왕보살품」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서 사중금을 참회하고 법을 비방하는 마음을 없애고 오역죄를 없애고 일천제를 멸하면, 그 후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깊고 비밀스러운 뜻이라고 한다.”⁷⁰⁾

라고 하여, 일천제는 일천제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라야 성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섭보살품」은 “일천제인이 선근을

68) 권35(『大正藏』12, 571c), “斷善根人 以現在世煩惱因緣能斷善根 未來佛性力因緣故還生善根”

69) 권27(『大正藏』12, 523c), “佛性者即是一切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

70) 권21(『大正藏』12, 488b), “一切衆生悉有佛性懺四重禁除謗法心盡五逆罪滅一闍提然後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名甚深秘密之義”

낼 수 있고 선근을 내고 난 후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아
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⁷¹⁾고 하여, 선근을 내고 그 선근
을 계속 유지할 때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다.

3) 보살의 일천제 구제

본 경도 다른 대승경전들과 마찬가지로 불보살의 무량한
자비사상을 설하면서 불보살의 자비의 위력으로 일천제를 구
제할 수 있다고 한다. 「현병품」에서

가섭이여, 세상에 있는 세 사람의 병은 다스리기 어렵다. 하나는 대
승을 비방하는 것이며, 둘은 오역죄며, 셋은 일천제니라. 이 세 가지
병은 세상에서 가장 重한 것이어서 성문이나 연각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⁷²⁾

여기서 성문이나 연각은 일천제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불보살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살품」
제16은 “일천제들이 훼방하고 파괴하고 믿지 않더라도 보살
들은 오히려 베풀어주고 無上의 道를 함께 성취하려고 한
다”⁷³⁾고 하여, 보살은 항상 자비로써 일천제를 성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품」에서는

71) 권35(『大正藏』12, 580b), “一闍提人能生善根 生善根已相續不斷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72) 권11(『大正藏』12, 673a), “迦葉 世有三人其病難治 一謗大乘 二五逆罪 三闍提 如是三病世中極重 悉非聲聞緣覺之所能治”

73) 권9(『大正藏』12, 660a), “一闍提輩雖復毀訾破壞不信 然諸菩薩猶故施與欲共成就無上之道”

“보살마하살이 초지에 머무는 것을 대자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선남자여, 최고로 극악한 사람을 일천제라고 하는데, 초지에 머무는 보살은 대자를 닮을 때에 일천제에 대하여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그의 허물을 보지 않아 성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⁷⁴⁾

라고 하여, 초지보살도 극악한 일천제에 대해서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대자심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상위 보살의 자비심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범행품」은 더욱 분명하게 보살이 지옥에 태어나 지옥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보살도 그와 같이 일천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함께 지옥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이 일천제가 고통을 받을 적에 잠시라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곧 그를 위해 갖가지 범을 설해 잠시라도 선근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⁷⁵⁾

이렇게 보살이 일천제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일천제가 보살의 자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성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살이 일천제와 같은 지옥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살자신이 먼저 무량한 수행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경은 보살의 수행도로서 성행과 범행을 들고, 성행으로는 계정혜 삼학의 실천·사념처행·사성제행·전범륜행 및 『

74) 권15(『大正藏』12, 454a), “菩薩摩訶薩住於初地名曰大慈 何以故善男子 最極惡者名一闍提 初住菩薩修大慈時於一闍提心無差別 不見其過故 不生瞋”

75) 권16(『大正藏』12, 459a), “菩薩亦爾 見一闍提墮於地獄亦願與俱生地獄中 何以故 是一闍提若受苦時 或生一念改悔之心 我即當爲說種種法令彼得生一念善根”

대승열반경』을 널리 유포할 것을 주장하고, 범행으로서는 칠선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 오계를 수지할 것을 설하고 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살은 자비와 서원으로써 일천제까지도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일체중생 실유불성을 믿고, 설산동자처럼 목숨을 바쳐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극한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보살은 육바라밀을 구족하고 해탈하여 불성을 명료하게 볼 수 있고 불성이 곧 열반인 줄 알게 되어, 일체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중생에게 알리는 사자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보살에 의한 일천제 구제사상은 나중에 『능가경』에서는 대비천제사상으로까지 발전된다.

초기불교나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출가자의 구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재가자의 구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재가보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불’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는 현실속의 일천제들을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보살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일천제는 한마디로 ‘절대로 보살이 될 생각도 없고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보살을 비난하고 보살의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천제는 당시 사회의 이교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단 내의 파계한 비구들이 대승법을 설하는 법사를 危害하는⁷⁶⁾ 등 『대승열반경』이 성립할 즈음의 불교교단의 어지럽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76) 권3(『大正藏』12, 623c), “有破戒者…咸共眞患害是法師”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극악하고 믿음이 없는 일천제도 불성을 믿고 이해한다면 미래 언젠가는 성불한다고 경은 주장하기 때문에 二乘이 그 본래의 근기를 버리고 성불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대승열반경』의 일천제 성불설은 석존이 주장한 ‘사성평등’ 사상과 『법화경』의 ‘會三歸一’ ‘無一不成佛’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서⁷⁷⁾, 이후 『불성론』을 비롯하여 『보성론』 『능가경』 『기신론』 등으로 계승되어 一切皆成佛의 일승 사상으로 전개된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본고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설과 천제성불설을 중심으로 『대승열반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살펴보았다.

『대승열반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일천제’가 아닌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자비와 서원으로써 일천제까지도 성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일천제란 보살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중생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불로 인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시설한 존재라고 생각된다. 『대승열반경』이 성립된 당

77) 金東華 『大乘佛敎思想』 (서울: 寶蓮閣, 1992), 215쪽

시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든 객체적인 대상인 악업 중생만이 일천제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숨어있는 일천제성 내지 일천제적인 요소도 문제된다고 생각된다.

『대승열반경』은 이러한 일천제를 전반부에서는 斷善根으로 정의하고 성불을 강하게 부정한 반면, 중반부에서는 성불과 불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 일천제라 할지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중생에게 구제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여래의 지혜와 그 지혜의 작용인 대비·본원사상과 보살의 서원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二乘은 물론 극악한 일천제라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극악한 일천제라도 상위 차원의 불성이라는 가치에 의하여 결국 성불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체중생 실유불성설과 일천제성불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일체중생 실유불성을 믿고, 『대승열반경』을 書·寫·受·持·讀·誦하고, 불성을 명료하게 알고보아 불성이 열반인 줄 알고, 자비와 서원으로써 일천제까지도 성불시키기 위하여 설산동자처럼 목숨을 바쳐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경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대승열반경』은 二乘은 물론 일천제의 성불까지 가능하게 하여, 불타의 ‘사성평등’ 사상과 『법화경』의 ‘회삼귀일’ ‘無一不成佛’ 사상을 계승하고 있

다.

인간은 물론 일체유정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천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보통사람 누구에게나 일천제성이 조금씩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실유불성설을 믿고 불성에 눈뜨기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할 때 다함께 해탈하고 열반하여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란 복음을 전하는 경전이 『대승열반경』이라고 생각된다.

『불성론』과 『보성론』 『능가경』 등에서 논하고 있는 一切皆成佛의 일승사상까지 두루 검토하여 비교연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그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주요어: 대승열반경, 실유불성, 일천제, 성불, 보살사상, 반열반

The Philosophy of Bodhisattva in
Mahāparinirvāṇa-Sūtra

Lee, Bong Soon

In this paper, I have searched the philosophy of bodhisattva appeared in *Mahāparinirvāṇa-Sūtra*. This sutra asserts that when sentient beings see their intrinsic Buddha-nature and there are awakening in their minds. In this canon, therefore, attaining Buddha-nature has been upheld a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connection with bodhisattva's practice and cultivation.

This sutra defines Bodhisattva as a personified figure who stands oppose to *icchantika*. I think *icchantika* was set up as an expedient method for the purpose of teaching people in the mundane world. Because this sutra, in the latter part, asserts that even *icchantika* can gain enlightenment since *icchantika* possesses Buddha-nature.

We were born as human beings with our inherited Buddha-nature. It is, however, a reality that there are so many *icchantikas* who have cut off their roots of goodness nowadays. It is thus thought that *Mahāparinirvāṇa-Sūtra* is sending us a strong message to carry on a life with Bodhisattva's mind instead of becoming an *icchantika*.

key word : Mahāparinirvāṇa-Sūtra, Buddha-nature, icchantika, philosophy of Bodhisattvas, Mahāparinirvāṇa, enlightenment